

# 광양항 위험물부두 고질적 체선 해소방안 찾는다

### 사포1부두 체선율 31.28%...광양항·여수산단 경쟁력 하락 여수광양항만공사 간담회서 '나프타 하역부두' 건설 제시

광양항 위험물부두인 사포1부두의 고질적 체선 문제의 해소방안을 찾는다. 이 부두를 주로 이용하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이 대체 부두로 나프타 하역부두 건설을 제시하면서 이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광양항 여천지역 위험물부두인 사포1부두의 체선·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부두를 이용하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여천NCC(주), LG화학(주), 롯데케미칼(주) 등 부두 이용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산단 중 연간 생산액의 7.9%인 83조원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산단이다.

특히 여천지역 위험물부두 중 사포1부두는 수입

되는 나프타를 배관 설비를 통해 나프타분해시설(NCC) 기반의 석유화학 3사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배관 이송 및 수입량 증대로 31.28%의 높은 체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양항과 여수산단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사포1부두의 체선 원인 분석에 따른 탄력적 부두 운영과 화물 처리의 효율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대체 부두인 '나프타 하역부두' 건설 방안이 제시됐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사포1부두의 체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기업들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선박 충돌 등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석유화학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지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위험물부두인 사포1부두의 고질적인 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부두로 나프타 하역부두 건설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양항 사포1부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사포1부두의 대체 부두인 나프타 하역부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이용자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

며 "실효성 있는 최적의 부두 건설 방안을 모색한 뒤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군, 문화공감사업 선정 3개 부문 2억3000만원 받아

보성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 기획 제작 프로그램에 선정돼 총 3개 부문에서 2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획 제작 프로그램은 총 5개 작품으로, 김광석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7월 16·17일), 뮤지컬 배우들과 실력과 재즈밴드가 함께하는 '재즈에 빠지다' (8월 20일), 오페라를 재구성한 '헬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8월 28일), 문예회관이 기획하고 보성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한 창작 음악극 '보성어네 생일작전 2탄' (11월 5·6·7일), 우리 전통 소싸움 놀이를 탈로 표현한 창작 연희극 '찾아가는 소싸움판 우왕전' (11월 26일) 등이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방역과 공연 준비에 온 힘을 쏟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억울한 일 고하시오"

### 순천시 소원수리함 '항통' 운영

"억울한 일 있으면 항통에 담아 고하시오."

순천시에 시민의 소원수리를 받는 함인 '항통(銜筒·사진)'이 설치됐다. 항통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직접 수령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관아에 설치한 대나무통이다.



순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항통'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이후 '암행어사', 갑질 신고함, 고충 처리함 등을 운영하다가 최근 허식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항통'을 제안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시대에는 대나무로 만들어 관료나 이사의 비리를 들었지만, 순천시는 건의사항이나 각종 민원, 제안, 고충, 칭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항통'은 읍면동을 순회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씩 비치한 뒤 목요일 회수할 예정이다.

허 시장이 '항통'의 열쇠를 보관하다 직접 개봉해 내용을 확인 검토 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허 시장은 "항통제도는 백성이 억울하거나 소외 당하지 않도록 조상들이 운영해 온 전통적인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공평한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과태료 물린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지극한 여수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

한 가맹점은 매출을 확인하는 등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수수료와 할인지원금의 환수 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을 중고 카페 등을 통해 싼값에 팔아 현금을 챙기는 '카드깡'을 막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왼쪽)와 순천시(오른쪽)가 전남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나란히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여수·순천시 3년 연속 지방세정 최우수기관

### 상사업비 1억3000만원, 8200만원 받아

여수시와 순천시가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나란히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상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순천시는 82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최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SNS 활용한 세정 홍보 및 세외수입 징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마을세무사 출장 상담, 유익한 세금 이야기 홍보 등 시민의 지방세 납부인식을 높이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순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납세편의 요구와 납

세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자발적 납세 협력, 가산세 방지를 위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보이는 ARS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세수 확충과 납세 편의시책을 펼쳤다.

또 올해는 연간 100만건 이상 발송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에 QR코드를 인쇄해 시·공간의 제약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정보를 QR코드로 안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시책을 펼 계획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 유당공원에 친일 단죄문

### 이근호·조예석기념비 옆 설치



광양시가 유당공원에 있는 친일인사 비석 옆에 단죄문을 설치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어 을사조약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와 일제강점기 판사를 지낸 조예석의 공적비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단죄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단죄문에는 이들을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라고 명시했다.

이근호(1861~1923)는 1902년 2월부터 제5대 전남도관찰사 겸 전남도재판소 판사를 지냈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강제 병합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조예석(1861~?)은 1902~1904년 광양군수를 지냈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강제 병합에 관계한 조선 관리들에게 일본 정부가 수여한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단죄문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적었다"며 "친일행적을 시민과 유당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